

BODY CONCERT

무용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움직임, 인간의 몸과 춤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든 작품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서트 형식의 작품이다. 2010년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초연 이래,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레퍼토리 중 가장 대중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재관람을 위하여 극장을 찾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하며, “일반관객을 위한 현대무용 입문서”라는 관람후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성장, 최근 동유럽을 대표하는 국제 공연예술 축제인 ‘시비우 국제연극제(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에 초청되어 전석기립박수를 받는 등 미국 샌프란시스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작품이다.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바디콘서트>는 다채로운 음악을 배경으로 춤을 통해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것, 어딘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시도한다. 도입부의 신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은 흥을 주체할 수 없다. 하지만 작품이 끝나갈 때 즈음 무용수의 손동작, 팔동작 하나에서도 느껴지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작품은 그냥 ‘춤’ 일 뿐이다.

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몸, 그 자체만의 순수한 언어가
과연 얼마만큼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까?



‘2010 크리티क्स 초이스, 최우수 작품상’

‘2012 MODAFE 국내 초청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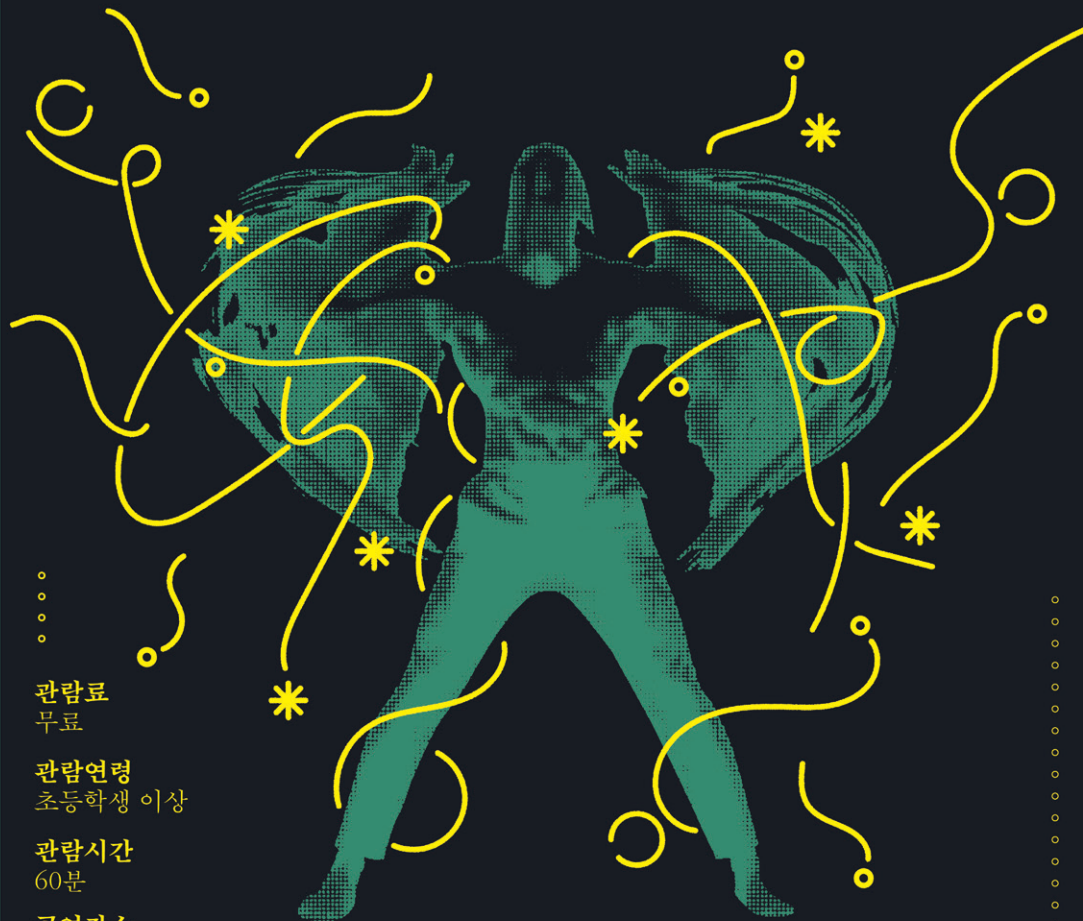
‘2016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 선정

공연일시	2019년 6월 29일(토) 5pm
관람시간	60분
공연장소	예천군문화회관 공연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의	예천군문화회관(650-6424)



바 디 콘 서 트

모든 것을 넘어선 춤의 한계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시간
60분

공연장소
예천군문화회관
공연장

2019
06.29 SAT **5pm**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예천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MBIGUOUS DANCE COMPANY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천군문화회관

작품구성

Chapter 1. Intro

언제나 자신감과 열정이 넘치는 바디콘서트의 첫 시작!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포부를 안고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강렬하게 귀를 때리는 비트에 몸을 맡겨
비트 하나하나에 소리를 몸을 통해 들려준다.

Daft punk - Superheroes

Chapter 2. 시속 80km

현대무용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새로운 춤의 개념을 선사한다. 무용수의 춤으로 음악을
들려준다. 음악이 갖는 심플하며 기계적인 소리를
제한적인 움직임을 통해 들려주기도 하며, 친숙한
헨델의 음악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속도의 움직임을
믹스매치 함으로써, 몸의 빠르고 느림의 상반됨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의
엠씨해머의 랩처럼 엠비규어스만의 가장 COOL한 춤의
절정을 보여준다.

Daft punk - Emotion

헨델 - 올게하소서

MC Hammer - It's all good

Chapter 3. 시속 120km

콘서트의 중반,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춤이
음악처럼 관객의 심장을 두드릴때까지 계속된다.
팝송에 한국전통의 춤사위를 접목 기존 한국 춤이 갖는
곡선적임을 깨고 음악의 간결함과 강함을 춤을 통해
들려준다. 또한 건반악기의 독특한 소리의 특성을 살린
춤을 선율파트와 베이스파트로 구분하고 독립된
그룹으로 보여줄 것이다.

Nate Dogg - I got Love

바흐 - Goldberg Var. BWV.988

박지윤 - 바래진 기억에

Chapter 4. 시속 180km

숨이 벅차오를 정도로 심없이 콘서트의절정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기에 이 정도의 숨 가쁨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줄 것이다. 그루브한 힙합음악에 클래식한
발레동작을 접목하여 우아한 발레가 아닌 파격적인 발레와
빠른 비트의 일렉트릭 음악 속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안무를
통해 좀 더 정교하며 구체적으로 음악을 들려준다.

Beyonce - Déjà vu

Tiko's Groove - Oh ja

Chapter 5. 목적지

덜컹없이 고조되었던 긴장감을 유지한 채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는 계속해서 나아 갈
것이다. 그 어떤 의문이 들더라도..

Maximilian Hacker - Dying

Chapter 6. 피날레

멋진 콘서트를 함께한 관객과 엠비규어스 모두에게
박수를! 앵콜!!!
진도아리랑(서편제 ost중)

©Kata Major&Rockstar Phothographers



© Sebastian Marcovici Sebastian Marcovici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Ambiguous Dance Company)> 는
춤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솔직한 소통의
도구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는 작품에서 어떠한
예술적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우리의 "몸"을 통해
음악과 춤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우면서 진실 된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작품>

쓰리볼레로, Don't do, 공존, 인간의 리듬, 언어학, 틈 등 다수

안무	김보람
출연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예술감독	김보람
대표	장경민



©Kata Major&Rockstar Photographers



©육상훈



바
디
콘
서
트

모
든
것
을
넘
어
선
춤
의
한
계